



전북현대차는 8일 일본에서 개막하는 2016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출전을 위해 7일 오사카로 출국한다. 10년 만에 다시 아시아 챔피언 자격으로 이 대회에 나서는 전북은 11일 클럽 아메리카(멕시코)와 첫 경기를 치른다. 사진제공 | 전북현대

## 전북 “억소리나게 즐겨라”

11일 클럽월드컵 첫 경기  
경기마다 상상초월 보너스

무심코 나온 말이였다.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알 아인을 따돌리고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를 평정한 뒤 전북 현대 최강희(57) 감독은 “우리에게 클럽월드컵은 보너스와 같은 대회”라고 말했다. 그러나 속내는 그렇지 않다. 올 1월 첫 소집 때부터 설 틀 없이 달려온 제자들이 마음의 짐을 덜고 최대한 즐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전북은 8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막하는 2016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 출전한다. 역시 아시아 챔피언 자격으로 나선 2006년 이후 10년만이자, 통산 2번째 출전이다. 대회 규정상 전북은 클럽 아메리

카(멕시코)와 대회 6강전(11일·오사카)부터 소화하는데, 만약 이 경기에서 이기면 2015~2016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를 제패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4강전(15일·요코하마)을 치른다.

각 대륙을 대표하는 최고 클럽들이 출전하는 만큼 전북은 최대한 긴 여정을 희망한다. 겉으로는 ‘보너스’라고 했고, “즐거자”는 설명을 더했지만 한 경기 한 경기에 걸린 진짜 보너스와 판돈은 상상을 초월한다. 최소 6위를 확정해 상금 100만달러(약 11억8000만원)를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순위를 한 계단씩 올릴 때마다 50만달러가 추가된다.

녹색전사들은 일찌감치 훈련을 시작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1일 전북 완주군의 클럽하우스에서 모여 담금질에 돌입했다. 마무리훈련을 겪었으

나, 메이저 클럽들과의 실전이 가미됐으니 전북 입장에선 이미 보장된 상금까지 더해 일석삼조가 아닐 수 없다. 클럽 아메리카를 꺾지 못하더라도 14일 5·6위 결정전(오사카)을 치르게 된다.

전북은 개막 하루 전인 7일 오사카로 출국한다. 물론 귀국 항공편은 확정하지 않았다. 1차전 결과에 따라 귀국일자, 공항 등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승전과 3·4위전 다음날인 19일 도쿄를 출발해 귀국하는 항공편을 예약해놓는 것도 그래서다.

최 감독은 “압박감은 (챔피언스리그보다) 훨씬 덜할 것이다. 그런데 압박을 받지 않는다고 해이한 마음 가짐으로 대회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진 능력만 증명한다’는 생각으로 나설 때 훨씬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극도의 외인 의존도, 토종 슈터는 외로워

### 바스켓볼 브레이크

일부 슈터들은아예 수비수로 전락  
문태중 “스스로 이겨내는 수밖에…”



남자프로농구에선 지난 시즌부터 외국인선수 2명의 동시출전(2·3쿼터)을 허용하면서 각 팀의 외국인선수 의존도가 높아졌다. 그 덕에 평균 득점은 전체적으로 상승했지만, 국내선수들의 입지는 크게 좁아졌다. 득점 2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선수는 KGC 이정현(평균 17.13점), SK 김선형(평균 15.00점), KGC 오세근(평균 14.60점) 등 3명뿐이다.

그나마 이정현과 김선형은 팀에서 주도적으로 볼을 잡고 플레이하는 선수들이지만, 볼 없는 움직임을 통해 찬스를 노리는 슈터들은 경기를 뛰는 재미를 잃어가고 있다. 국가대표 경험이 있는 A팀의 한 슈터는 “외국인선수 대부분이 볼을 잡고 해결하는 경향이 많다. 작년까지는 한 쿼터에 3~4개 정도는 쏘는데, 올 시즌에는 한 쿼터에 쏠 한 번 던지지 못한 적도 있다. 다른 팀 슈터들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수비나 리바운드 쪽에 더 신경을 쓴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잘하는 것을 할 때 슈터의 강점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B구단 슈터는 아예 쏠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았다. 그는 “A의 말에 공감한다. 볼이 워낙 안 오니까 한 번 볼이 오면 제



남자프로농구에선 외국인선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토종 슈터들의 공격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오리는 문태중은 “슈터들이 볼을 잡을 기회가 많지 않다”면서도 “스스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KBL

대로 된 밸런스로, 타이밍도 아닌데 급하게 쏘게 된다. 그러다 몇 개 안 들어가면 ‘왜 이렇게 쏘이 안 들어가는냐’라는 말을 듣는다. 이제는 아예 쏠에 대한 마음을 비웠다. 그냥 ‘나는 수비수다’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B구단 포인트가드는 “팀 공격의 다양화를 위해선 슈터들에게 꾸준히 패스를 해야 한다. 하지만 코칭스태프에서 일단 인사이드로 볼을 넘으라고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다. 슈터들이 터져야 위력이 배가될 수 있는데…”라며 아

쉬워했다. 전성기에 유럽무대에서 정상급 슈터로 이름을 날린 문태중(41·오리온)은 “국내프로농구가 유럽에 비해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슈터들이 볼을 잡을 기회가 많지 않다. 올 시즌부터는 벤치에서 몸을 풀지도 못해 감각을 찾기가 더 어렵다. 하지만 어찌겠는가. 그것이 슈터의 운명이다. 스스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며 슈터의 비애를 털어놓았다.

정지국 기자 stop@donga.com

## KCC-KB스타즈 프로구단 성과평가 ‘S등급’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국내구단 평가  
배구는 현대캐피탈·GS칼텍스 ‘최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진행한 프로구단 성과 평가에서 남녕프로농구 KCC와 KB스타즈, 남녕프로배구 현대캐피탈과 GS칼텍스가 최고 S등급을 받았다.

협회는 6일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 차등 지원을 위한 프로구단 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마케팅 및 관리 비용의 총액, 입장수익 등을 비롯한 총 15개 항목을 지표로 실시됐다. 남자프로농구 최고 등급을 받

은 KCC는 노후화된 경기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유료 평균관중과 유료 평균관중 증가율(전년 대비 15.72% 증가), 입장수익 항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KB스타즈는 유료 평균관중과 입장수익, 마케팅 혁신 및 사회공헌활동 항목에서 고득점을 얻었다.

남자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은 TV 시청률과 인터넷 중계 동시 접속자 수, 유료 평균관중, 입장수익, 마케팅 혁신 및 사회공헌활동 항목에서 다른 구단들을 앞섰고, 활발한 팬서비스와 관중석 개선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GS칼텍스는 마케팅 및 관리 비용, 광고수익, 프로단체 정책사업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

수를 얻었을 뿐 아니라, 독립법인으로 운영돼 가산점을 받았다.

협회는 프로구단간, 종목간 성과평가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구단들이 적극적으로 자생력을 기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변화를 도모하는 구단에는 더 많은 지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올 4월에는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수원삼성과 챌린지(2부리그) 대구FC, 프로야구 한화가 각각 최고등급을 받은 바 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오리온 90점대-KGC 80점대” 1순위

농구토토 매치 62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7일 오후 7시 교양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2017시즌 국내남자프로농구(KBL) 오리온-KGC전을 대상으로 한 농구토토 매치 62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57.00%는 홈팀 오리온의 승리를 내다봤다. 양 팀의 같은 점수대 박빙승부 예상은 30.65%, 원정팀 KGC 승리 예상은 12.33%로 각각 집계됐다.

전반에도 오리온 리드 예상이 50.12%로 가장 높았고, KGC 리드 예상(25.04%)과 양 팀의 5점차 이내 접전 예상(24.84%)이 그 뒤를 이었다. 최종 득점대에선 오리온 90점대, KGC 80대 예상(24.51%)이 각각 1순위를 차지했다.

오리온은 4일 삼성의 5연승을 저지하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이날 애런 헤인즈의 활약을 바탕으로 매 쿼터 20점 이상을 올리며 시즌 2번째로 100점 경기를 펼쳤다. 최근의 물오른 경기력이라면 홈경기 전승(7승)을 기

농구토토 매치 62회차 투표율 중간 집계

| 구분  |          | 전반 득점대   |           | 최종 득점대   |     |
|-----|----------|----------|-----------|----------|-----|
|     |          | 오리온스-KGC | 투표율       | 오리온스-KGC | 투표율 |
| 1순위 | 45-40    | 10.18%   | 90-80     | 24.51%   |     |
| 2순위 | 40-35    | 9.04%    | 90-70     | 10.40%   |     |
| 3순위 | 35-35    | 8.95%    | 80-80     | 9.91%    |     |
| 합계  | 홈팀 우세    | 50.12%   | 홈팀 승리     | 57.00%   |     |
|     | 5점 이내 박빙 | 24.84%   | 10점 이내 박빙 | 30.65%   |     |
|     | 원정팀 우세   | 25.04%   | 원정팀 승리    | 12.33%   |     |

록 중인 오리온이 KGC를 제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KGC는 압박수비의 빈도가 높은 만큼 선수들의 체력관리

이다. 이번 농구토토 매치 62회차는 경기 시작 10분 전인 7일 오후 6시50분 발매에 따른 기록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프로토) 이외 모든 유사 스포츠베팅 행위는 ‘불법스포츠포박’이며, 이를 이용할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클린스포츠 통합센터 | 콜센터 1899-1119 | www.cleansports.or.kr

• 공식베팅사이트 | www.betman.co.kr

“대한항공, OK 쥘이야” 55%  
배구토토 스페셜 84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7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벌어질 2016~2017시즌 국내프로배구 V리그를 대상으로 한 배구토토 스페셜 84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54.90%는 남자부 대한항공-OK저축은행(2경기)전에서 대한항공의 승리를 점쳤다. OK저축은행 승리 예상은 45.09%로 나타났다.

최종 세트스코어 예상에선 3-2 대한항공 승리(21.57%), 1세트 점수차 예상에선 2점(45.80%)이 각각 1순위를 차지했다. 여자부 흥국생명-도로공사(1경기)전

배구토토 스페셜 84회차 투표율 중간 집계 (6일 오전 8시 현재)

| 구분     | <1경기>     |             | <2경기>       |  |
|--------|-----------|-------------|-------------|--|
|        | 흥국생명-도로공사 | 대한항공-OK저축은행 | 대한항공-OK저축은행 |  |
| 세트스코어  | 3대0       | 13.67%      | 12.38%      |  |
|        | 3대1       | 12.86%      | 20.95%      |  |
|        | 3대2       | 17.35%      | 21.57%      |  |
|        | 0대3       | 17.34%      | 14.66%      |  |
|        | 1대3       | 12.30%      | 10.32%      |  |
|        | 2대3       | 26.47%      | 20.11%      |  |
| 1세트점수차 | 2         | 50.22%      | 45.80%      |  |
|        | 3         | 28.79%      | 30.58%      |  |
|        | 4         | 7.36%       | 8.96%       |  |
|        | 5         | 5.29%       | 6.47%       |  |
|        | 6         | 3.67%       | 4.12%       |  |
|        | 7+        | 4.66%       | 4.06%       |  |
| 승패     | 홈 승리      | 43.88%      | 54.90%      |  |
|        | 원정 승리     | 56.11%      | 45.09%      |  |

에선 도로공사 승리 예상(56.11%)이 흥국생명 승리 예상(43.88%)을 앞질렀다. 최종 세트스코어 예상에선 2-3 도로공사 승리(26.47%), 1세트 점수차

예상에선 2점(50.22%)이 각각 최대로 집계됐다. 이번 배구토토 스페셜 84회차는 1경기 시작 10분 전인 7일 오후 4시50분 발매 마감된다.

2016 토토 해피박스  
‘레전드 멘토링’ 성료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스포츠동호회 후원 이벤트 ‘2016 토토 해피박스, Hi-five 우리 동호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레전드 멘토링’을 성황리에 마쳤다.

사회체육동호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이벤트에서 서울의 ‘스냅’과 경기도 남양주의 ‘루나틱’이 레전드 멘토링에 선정됐고, 두 팀을 포함한 10개 동호회에 300만 원 상당의 운동 용품이 지원됐다. 이번 레전드 멘토링에선 국내프로농구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우지원과 김훈에게 직접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 덕분에 시작 전부터 농구동호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무려 2만9530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이벤트에 당첨된 농구동호회 2개 팀 40여명은 4일 김포생활체육관에서 약 7시간 동안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윤종원 케이토토 마케팅부장의 개회사로 막을 올려 오전에는 드리블, 슈팅 등 개인기술훈련을 연마한 데 이어 오후에는 포지션별 스킬 트레이닝 후 양 팀의 정식 경기로 마무리됐다.